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열규



서울을 떠나서 남해하는 열차 안에서 생긴 일이다.
막 서울역을 나서서 남해하기 시작한 열차의 어느 칸이 시끌벅적했다. 부산과 대구 등지, 이른바, '남도 여성'들이 많이 탄, 때문이라고 했다.

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는 어리둥절할 게 뻔하다. 거기에는 영남말의 멋과 흥이 넘실대고 있지만 서울 사람 귀에는 외국말로 들릴지도 모른다.

“지금도 사투리·표준어 따지는가?”

부산 여성의 발언을 서울 사람 알아듣기 쉽게 옮겨 보자. ‘그래, 이 (기자) 칸이 똥땅네 칸이라고 말하는 건가?’ 이쯤 될 테지만 그걸 가지고는 흥겨운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은 눈곱만큼도 없을 것이다.

뜻이 활개 치고 있다. 그건 다름 아니고 서울 시민가운데서도 종류의 말을 ‘표준어’라고 떠받들고, 서울 아닌 다른 고장의 말은 ‘사투리’라고 통을 주는 일이다.
‘사투리·표준어’의 이분법은 지금도 서슴이 퍼렇게 살아 있다. 살펴대고 있다.

물론 ‘방언(方言)’이란 낱말로 쓰러기 통에 내다 버려야 한다. 방언이란 낱말을 끈이끈대로 풀면 어떻게 될까?
그건 ‘중안 아닌, 변두리, 외딴 곳의 말’이란 뜻을 갖고 있다. ‘중안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이, 그나마 중앙은 섬기고 떠받들고 지방은 깔아뭉개고 하던 아주 고약한 묵은 시대의 이분법이며 그 악습이 거거 엉겨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독자논단

김용하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레나테홀 여사라는 독일여성이 화제가 되었다. 짧은 시절에 대학에서 만난 북한청년 유학생과의 뜨거운 사랑 끝에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아서 길렀다.

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말로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기 주변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국군포로가 몇 명인지, 납북자도 몇 명인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기고

배성근



앞으로 며칠 있으면 추석 대명절이다. 연휴 기간내내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화재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훨씬 흔해져서 요즘엔 100~200m 구간을 빠져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혼잡으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곳도 많다.

인도주의정신으로 생이별 해소하자

리의 문화와 산천을 둘러보고 돌아간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되기를 희망하며 국제적으로 호소할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온 국민들이 한 외국여인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도 정작 더 많은,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수많은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국민과 국가가 총력을 기울인 것과같이 이번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접촉에서는 그 무엇보다 남북이산가족상봉과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권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추진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에 큰 손해가 나서 우리가 지원 하는 것도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인간존중과 인도주의를 위한 것 아닌가? 자연재해로 입은 고통도 서로 위로하고 돕는 마당에 인위적으로 야기한 고통을 직접 당사자가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과연 남북상호 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급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조차도 훼손될 것이다.

소방도로엔 한 쪽 면만 주차하세요

도록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의 기능을 해야 할 광주지역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과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장애물로 인해 한낱에 승용차들의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 구조,구급출동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흡수율은 왼쪽 면에, 좌수납은 오른쪽 면에 주차하는 ‘주차 2부제’를 실시해야 하며 소방도로에 표지판을 세우고 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주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 재래시장의 좁은 진입로와 주차차량 및 인근 상점의 입간판들까지 난입해 소방차가 출입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진 경우도 있다.
주말화제시에도 좁은 진입로 코너에까지 차량들이 주차돼 진화가 지연되기도 한다.
이처럼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관들의 사이렌을 수십여 차례 울리고 인근 가정집 대문을 두드리며 돌아다니는 등 주차된 차량과의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급증... 규제 법률 마련해야

휴대폰 소액결제는 주로 인터넷 채팅, 게임 등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할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의 간단한 개인정보와 전화번호 또는 승인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번호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있다.

도용으로 인하여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더라도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업체, 컨텐트제공업체 등의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소액결제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들 스스로 예방하는 길밖에 없다.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갓길 암체운전 말아야

을 추측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을 찾는다. 특히 고속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지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으로 구간구간 막히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여유있는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간혹 자·정체가 발생한 구간에서 혼자만 빨리 가기 위해 갓길로 운행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암체운전

이 교통소통을 방해한다.
교통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의식이 요구된다.
이번 연휴에는 안전운전의 실천으로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시설

F1특별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F1(포뮬러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특별법의 을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 신안군 등은 F1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F1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F1대회의 효과는 엄청나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대회는 세계자동차 산업의 경연장이다.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물론 관광객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남도는 경제효과 및 국가신용도 상승 등을 종합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부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니...

지나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금융자산 상위 20명의 평균 보유자산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는 10억 원대 재산가도 다수 있다고 한다.
역대 재력가의 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일부 재력가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밀폐된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구멍이 뚫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검증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

120만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어떻게 수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외국 관광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고객금융자산으로 광명대 급여 보장증을 받은 경우도 2005년 1천620가구에서 지난해에는 2만2천431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광주시도 지난해 5천20가구가 부정수급자로 드러나 지원을 중단했다.
여러 수급자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부정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실제 빈곤층 가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無等鼓

비행기는 가장 안전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 평가된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1억마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사망자가 0.97명인데 반해 항공기는 0.05명이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많이 이용자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저가 항공시대가 열렸다. 오는 2010년까지 외국 국적의 저가 항공사 10여개사가 국내에 취항하고 대한항공까지 뛰어들 테세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든 점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가 항공



비행기는 가장 안전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 평가된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1억마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사망자가 0.97명인데 반해 항공기는 0.05명이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많이 이용자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문제에 안전성이다. 지난 16일 휴양지로 유명한 태국 푸켓공항에서 태국 국내선 저가 항공사 여객기가 착륙 도중 두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해 80여명이 사망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인 13명이 캄보디아에서 구형 소형 여객기를 타고 가다 습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 F A X 2200-521 >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 F A X 227-9500 >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 F A X 2200-536 >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222-4267 > 조 사 부 2200-570 시 업 2 부 2200-552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